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 당신과 함께 생명을 지킵니다
 경찰청		배포일시	2019. 10. 16.(수) / 총 5매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	담 당 자	·과장 운영중, 사무관 김태윤 ·☎ (044) 201-3862, 3863	
	경찰청 교통안전과	담 당 자	·과장 박종천, 경정 호육진, 경감 정현호 ·☎ (02) 3150-2052, 2552, 0637	
보 도 일 시		2019년 10월 1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방송·통신·인터넷은 10.16.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정부 종합대책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폭 지속 확대

- 9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, 전년 동기간 대비 13.8% 감소 -

- 사망자 2,402명, 전년 대비 13.8% 감소, 하반기 감소폭 지속 확대
- 울산(45.3% ↓), 광주(32.1% ↓), 서울(21.8% ↓) 등 크게 감소, 인천(16.0% ↑), 제주(1.9% ↑) 증가
- 음주운전(35.8% ↓), 사업용차량(15.8% ↓), 보행자(15.0% ↓) 크게 감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경찰청(청장 민갑룡)은 올해 9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(2,787명)에 비해 13.8% 감소한 2,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.

-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-9.2%를 기록한 이후 7월말 기준 -10.9%, 8월말 기준 -13.1%, 9월말 기준 -13.8%로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,
-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, 정부의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□ **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**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**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***의 하나로서, 정부는 **교통안전종합대책**을 수립하여 추진 중(18.1월~)에 있다.

* 2022년까지 자살, 교통사고, 산재사고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으로 감축

○ **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**을 위해 **도심 제한속도를 50km/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**을 개정(19.4월)하였으며,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**교통 정온화 시설***의 설계기준을 마련(19.2월)하였다.

* 회전교차로, 차로폭 축소, 지그재그형 도로,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서행운전 유도

○ **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**(19년 국도 258개소, 지방도 331개소)을 추진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,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해 **노인보호구역**(19년 78개소) 및 **어린이보호구역**(19년 570개소)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.

○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'18년부터 **버스,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**를 장착하고 있으며, 사업용차량 **고령운전자(65세 이상)** 대상으로 **자격유지검사를**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.

○ 또한 반기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분기별 국정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부처 간 **협조 필요사항을 논의**하고 상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**최선의 노력을 다**하고 있다.

○ 그 결과,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,781명(전년 대비 9.7% 감소)으로 **42년 만에 4,000명 아래로 감소**하였으며, 올해도 **13% 이상의 감소율**을 보이며 범정부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.

□ 시·도별로 보면,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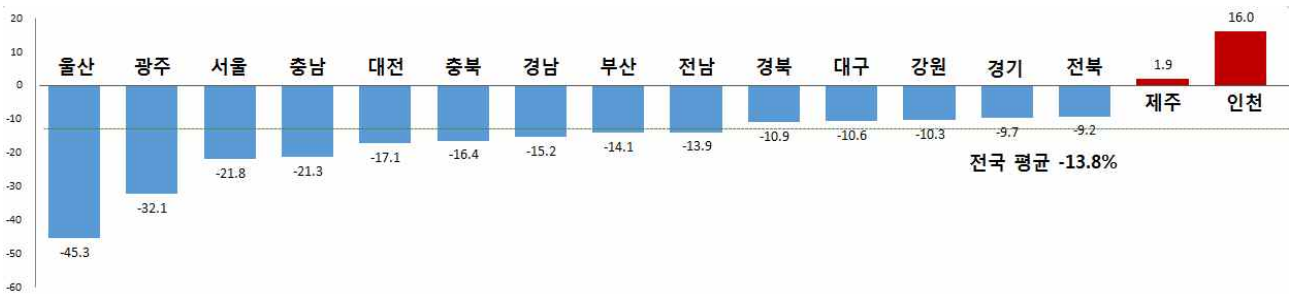
- 전국 지방경찰청과 지자체,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'지역 교통 안전 협의체'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설 개선 등 교통 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,
- 울산(-45.3%), 광주(-32.1%), 서울(-21.8%)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고, 인천(+16.0%), 제주(+1.9%)는 다소 증가하였다.

< 시·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> (단위 : 명, %)

구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'19.1~9월	2,402	179	85	84	94	36	58	35	457	140	143	211	167	211	254	195	53
'18.1~9월	2,787	229	99	94	81	53	70	64	506	156	171	268	184	245	285	230	52
증 감	-385	-50	-14	-10	13	-17	-12	-29	-49	-16	-28	-57	-17	-34	-31	-35	1
(%)	-13.8	-21.8	-14.1	-10.6	16.0	-32.1	-17.1	-45.3	-9.7	-10.3	-16.4	-21.3	-9.2	-13.9	-10.9	-15.2	1.9

* 충남은 세종을 포함한 수치

< 시·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(%) >



-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보면, 울산 남구(-71.4%), 서울 송파구(-69.6%), 대구 수성구(-63.2%)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,

<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상위 10개 기초 자치단체(인구 30만명 이상) >

기초 지자체	울산 남구	서울 송파구	대구 수성구	광주 서구	서울 영등포구	안산시	청주시	서울 광진구	서울 노원구	울산 북구
'19.1~9월	6	7	7	3	8	17	33	3	6	7
'18.1~9월	21	23	19	8	17	35	67	6	12	14
증 감	-15	-16	-12	-5	-9	-18	-34	-3	-6	-7
(%)	-71.4	-69.6	-63.2	-62.5	-52.9	-51.4	-50.7	-50	-50	-50

- 부산 사하구(400%), 인천 남동구(137.5%), 인천 부평구·서울 서대문구(100%) 등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.

<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하위 10개 기초 자치단체(인구 30만명 이상) >

기초 지자체	부산 사하구	인천 남동구	인천 부평구	서울 서대문구	원주시	서울 양천구	서울 강서구	파주시	서울 중랑구	인천 미추홀구
'19.1~9월	10	19	14	10	22	9	13	18	11	13
'18.1~9월	2	8	7	5	12	6	9	13	8	10
증 감	8	11	7	5	10	3	4	5	3	3
(%)	400	137.5	100	100	83.3	50	44.4	38.5	37.5	30

□ 주요 항목별로 보면 중점 추진 중인 음주운전, 사업용자동차,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다.

- 지난 6. 25.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(혈중알코올농도 0.05%→0.03%)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하였으며,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실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*한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가 35.8%(268 →172명, -96명) 감소하였다.

* 올해 1~9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은 총 93,6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5.3% 감소

- 또한,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통안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한 결과,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.8%(551 →464명, -87명) 감소하였는 바,

- 렌터카 25.6%(-21명), 택시 15.9%(-22명), 화물차 20.0%(-31명), 시내·시외·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.8%(-13명), 전세버스 6.3%(-1명)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.

-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'안전속도 5030'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'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!', '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!'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, 보행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.0%(1,057 → 898명, -159명) 감소하였다.

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.
 - 특히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10. 17.(목) 14:0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‘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’을 개최하고 각 기관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 - ※ 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3.3명(OECD 평균 1.1명)
 - 또한 10월부터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만큼,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,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전세버스 출발·경유·도착지 지점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일선 경찰서 및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 -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통해 각 지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.
 - 또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국민들 개개인이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, 이웃들의 생명 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,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국 경감 정현호(☎ 02-3150-0637),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태윤(044-201-38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